# 양식장 새떼 퇴치 '소음'이 藥

## 여수시 9천만원 들여 특수음향 설치 큰 효과

여수시가 소음이 발생하는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가두리 양식장에 피해를 끼치는 새떼를 퇴치하는 큰 효과를 거뒀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읍 인근 송도와 무인도인 소송도 사이 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 왜가리떼가 나타나 물고기를 마구 포식하자 최근 9000여만원을 들여 조류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나는 특수 음향시스템을 설치, 양식장 피해를 크게 줄였다.

여수시는 최근 수년 사이 소송도에 수천 마리의 왜가리가 살면서 40여 어가가 설치한 10㏊의 가두리 양식장을 습격, 물고기를 훔쳐먹는 일이 잦아 지난해말 송도 해변 2곳에 이 음향시스템을 설치했다.

음향시스템 설치 후 수천 마리에 달하던 왜가리가 현재 수백 마리로 줄면서 양식장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음향시스템은 CC-TV와 연동돼 양식장에 왜가리 출현이 감지되면 즉각 소음이 발생, 왜가리를 쫓는 방식이어서 양식장 피해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다.

어민들은 남아있는 수백 마리의 왜가리도 모두 내쫓아 더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왜가리들은 양식장이 없는 섬 반대편에 서식하고 있고, 설령 양식장 쪽으로 오더라도 음향시스템이 있어 피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산수유 꽃이 피었습니다"

## 구례군 내달 17~20일 '산수유 축제'

지리산의 봄 소식을 전하는 '제13회 산수유축제'가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계척마을과 지리산온천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첫날 산동면 계척마을 산수유 시목지에서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개막, 18일에는 지리산온천지구 특설무대에서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9일에는 국립 창극단의 '산동애가' 공연, KBS 전국노래자랑 결선 등이 열리고, 마지막날에는 실버 페스티벌과 폐막 콘서트 등으로 막을 내린다.

이밖에도 1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산수유 꽃 디카사진 콘테스트를 비롯해 ▲전국어린이 사생대회 ▲동요대회 ▲산수유 건강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행사 주무대를 산수유 군락지로 옮겨 산수유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매달 19일 '구인·구직 만남'

## 광양시 맞춤형 인재·일자리 지원

광양시는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9일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금까지 1년에 4번 개최해 오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광양 희망 일자리센터 연락처(797-1919)와 접목해 '일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월 19일에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일자리 종합센터를 개소하고, 직업 전문상담사를 채용, '워크넷'과 광양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work.gwangyang.go.kr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구직자에게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기업체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행사 장소를 한곳 더 추가해 동시 면접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직업상담사가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해 채용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4월과 10월에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맞춤형 인재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 여수경찰서 워크숍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는 지난 1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친서민 정책 챙기기에 나섰다.

지역주민들과 경찰서장, 실무담당 경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은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의 인권의식 고양 ▲부패·비리 척결 등 조직문화 확립과 의식개혁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정의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조직 운영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기민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실무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경찰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급해 경찰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곡성 미래비전 정책 자문단 구성

## 郡, 각계 68명 위촉…의견 행정 반영

곡성군이 군정시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

곡성군은 지난 15일 각계 전문가 68명으로 구성된 민선 5기 군정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군정 자문단은 농림·문화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지역개발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주요 군정시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폭넓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군수의 정책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신규사업 발굴 ▲강의·포럼·컨설팅 등 군정 현안은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분기 1회 이상 분과별 자문위와 연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군정 자문단장은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최수명 교수가 선임됐으며 ▲순천대 이기웅 교수(농림) ▲동신대 김희승 교수(문화관광) ▲전남과학대 박영애 교수(보건복지) ▲순천대 김훈 교수(산업경제) 등이 각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허남석 군수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과 폭넓은 경험이 곡성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고흥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선정

고흥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마늘 우량종구(種球) 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연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저온저장고, 집하장, 건조시설 등 저장·보관시설과 파종기, 수확기, 주아 선별기 등 생산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마늘 대주아를 이용한 우량 씨마늘 생산과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품질향상 등 마늘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흥군은 국내 마늘산업을 선도하고 최우수 브랜드마늘 주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2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군산항 GCT 흑자 물거품 되나

〈컨테이너 터미널〉

## 임대료 감면혜택 중단…가격 경쟁력 떨어져 화물유치 빨간불

올해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GCT) 화물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지난 6년간 지원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올해 1월 1월부터 해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꾸준한 화물유치에 힘입어 8년만에 만성적자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GCT의 올해 흑자달성이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17일 군산시와 군산항 GCT 등에 따르면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소유기관인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 감면혜택을 중단했다.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이번 조치로 군산항 GCT는 그동안 감면을 받았던 연평균 5억원을 올해부터는 공단측에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실제로 2008년 10억원, 2009년 7억6000만원 등 그동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군산항 GCT는 지난해 활발한 물류유치로 적자폭이 1억1000만원에 그쳤으며 올해 GCT 설립(2004년)이후 처음으로 흑자운영이 기대됐다.

임대료 50% 감면혜택이 해지되자 설립 8년만에 첫 흑자를 기대했던 군산항 GCT와 군산시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GCT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컨테이너의 요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화물 가격의 경쟁력이 약화해 컨테이너 화물유치가 더욱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산항 피더(지선 근거리 운항) 항로를 운항하는 3개 선사의 적자폭이 111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칫 이들 선사의 군산항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랜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왔고 올해서야 결실을 보는가 싶었는데 감면혜택 중단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컨테이너부두 공단 측에 여러 차례 감면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GCT는 2004년 대한통운과 세방, 선광 등 3개의 물류사와 전북도, 군산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전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해야"

## 전북시민단체 촉구

전주 시내·시외버스 파업이 두 달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전북도당, 전주시민회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버스파업 해결과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16일 전주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버스회사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전주시민의 편의와 버스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완전공영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승희 진보신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전주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산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버스 공영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버스회사들이 적자 타령을 운운하면서도 운영권을 계속 쥐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버스 완전 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도 "전주시내 버스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해 과도한 보조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전주의 경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준공영제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공영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의견을 전주시와 전북도 등에 전달하고 '전주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역 7개 시내·외버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7일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 남원 춘향제 5월 6일 개막

올해로 81회째를 맞는 춘향제가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개최기간인 5월 첫째주는 춘향전 속의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시기이며 행사기간 전후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은 기간이다.

올해 춘향제는 행사 내실과 상징성을 고려해 축제 전반에 걸쳐 행사만족도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낼 알찬 사랑축제를 펼친다.

특히 전통적 격식과 정신은 유지하되 춘향사상을 보편적 사랑으로 폭을 넓히고 대회, 전시 위주에서 놀이·체험 등 참여형 종목을 강화할 방침이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나열식 전통문화 종목을 지양하고 차별적이고 주제적인 사랑과 만남의 종목을 도입해 축제의 틀을 '전통과 사랑'으로 포지션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순창 장류축제장 주변에 '장독쉼터'

순창군은 '제6회 순창 장류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醬)을 상징하는 장독 항아리를 활용해 '장독쉼터'를 조성한다.

'장독쉼터'는 고추장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순창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축제장 주변에 볼거리를 연출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군은 전국 제1호 장류 특구단지내 HACCP 위생 메주공장,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를 거쳐 축제장과 '천년의 정원'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장독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농촌의 빈집과 농가를 대상으로 장독항아리를 다음달 30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집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 전주대 '창업 선도대학' 선정

전주대학교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업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정부가 청년층 창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별로 선발해 창업 거점으로 키우는 것으로 대학별로 2년간 최대 8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주대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비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김제시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착수

김제시는 과수농가에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2011년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시는 올 사업비 22억6500만원을 투입해 고품질 과일생산과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등 생산자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사업대상 과수농가는 총 321호로 배 재배농가에는 관정개발, 방풍망·방조망, 지주시설, 친환경 과원 관리사업이, 포도농가에는 간이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개·보수, 친환경 과원 관리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정읍 신정동에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설립

오는 2014년 국내 최고의 화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분원이 정읍시 신정동에 들어선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연구소와 지자체간 설립에 따른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립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분원은 앞으로 고기능 고분자(LED) 소재 전자인쇄와 의약·바이오 분야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동 인근에는 33만5800㎡(100만평) 규모의 첨단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 타임즈' 발간

부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부안지역 다문화가정의 정보를 담는 다문화 전문신문인 '부안 다문화 타임즈'를 발간할 예정이다.

'다문화 타임즈'는 3월말 창간호 16면을 발행할 예정이며, 격월로 8면의 신문이 나오게 된다.

복지관은 결혼이민여성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다문화사업에 활동한 10명으로 기자단을 구성해 ▲신문의 역할 ▲기자의 자세 ▲기사쓰기 ▲다문화가정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